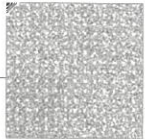




밤의 빛 속 막달레나(부분)  
조르주 드 라 투르  
(Georges de La Tour, 1593-1652)  
1642-1644, 캔버스에 유채,  
128x94cm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 파리

## 〈부활 감사송 1: 파스카의 신비〉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밤(날, 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 주간 첫날 이른 아침, 빈 무덤에서 열린 희망



최광희 마태오 신부 | 문화홍보국장

다시금 찾아온 부활의 때를 맞아, 과연 이 시간들을 보내며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었는가 자문해 봅니다. 생생한 부활의 기쁨과는 다소 떨어진 듯한 고민과 아쉬움이 떠오르는 우리에게, 오늘 복음은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 길을 밝혀줍니다.

오늘 복음서가 전하는 부활의 첫 장면은, 찬란함보다는 조용하고 낮선 가운데 펼쳐집니다. 부활을 전하는 이야기는 “주간 첫날 이른 아침”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이야기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른 아침’이라는 표현은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이 순간은 어느 때보다도 어둠이 깊지만, 빛이 드리우기 시작하는 희망을 기다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신앙도 아직은 ‘새벽’에 머물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과 의심,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아슬아슬한 새벽 말입니다.

그 새벽, 사도도 아닌 여인들이 먼저 무덤을 찾았다는 사실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그들은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을 어떻게 옮길지조차 크게 걱정하지 않은 채 나아갔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들을 움직인 것은 단 하나,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참된 신앙은 결국 주님께 대한 집중이며, 그 집중은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또한 이들이 놀란 것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졌

다는 점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먼저 그 큰 돌이 치워진 데 놀랐을 법도 하지만, 복음 속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빼앗긴 것은 주님의 시신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한 부활의 첫 징표는 화려한 기적이거나 감각적인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 곧 끝이라 여겼던 인간적 판단의 증거가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빈 무덤의 의미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 만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의 ‘빈 무덤’을 마주해야 함을 되새기게 됩니다. 마음 가득 들어찬 내 생각, 감정, 계획들을 내려놓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머무실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이번 부활 시기에는 내 안에 한 칸씩 빈자리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이웃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감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조용히 십자가에 맡겨 봅니다. 그렇게 비워진 마음으로 다시금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그들의 모습은 전과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시는 모습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 안에서 조용히 찾아오시는 주님. 그분을 알아보고, 기쁘게 맞아들이는 부활 시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그리스도 우리의 빛

성화 해설

라 투르가 그린 막달레나는 오른손을 해골에 얹고 촛불을 보며 묵상하는 모습입니다. 책상에는 성경이 놓여있고 십자가 위에 채찍이 올려져 있습니다. 해골은 인간의 죽음을, 십자가와 채찍은 수난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말씀(성경)은 인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촛불이 모든 것을 비춥니다. 막달레나는 죽음과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빛을 봅니다. 그녀는 예수님 죽음의 목격자이며 부활의 증거자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밝힙니다.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 왜 이럴까?



최남식 베드로 신부 | 살레시오회(살레시오청소년센터)

청소년들에게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니?” 하고 물으면 보통 가족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이 가족보다 또래 친구들을 더 좋아할 것이라고 단정 짓곤 합니다. 그들이 가족보다는 또래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학교에 입학한 청소년들이 가족들보다는 또래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아침 8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만나고 그 이후 시간에는 방과 후 수업을 하거나 다양한 학원에 다니다가 밤 10시 이후에나 집에 돌아오니까요.

자연히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식사를 함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부모와 대화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청소년기 아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속내를 나누고 싶어 하고, 관심받고 싶어 합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이 ‘왜 이럴까?’ 생각해 보면, 몸은 이차 성징으로 자랐지만, 마음은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의 아이들은 이런 자신의 미성숙한 모습을 감추려고 더 강하게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린아이처럼 한없이 연약한 모습으

로 눈물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 스스로도 자신의 감정의 기복 앞에 “왜 이럴까?” 의아해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이런 특성을 감안하여 청소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여전히 청소년에게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답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활을 받아들이기 위해 반드시 수난과 죽음을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과 부모님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부모들도 서로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인내로운 숙고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룰 수 있을 때까지, 부모님이 인내로 곁에 머물러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표현 그대로 아이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할 때까지 부모님들이 참고 견디며 ‘버텨주기(Holding)’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춘기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담아내기(Containing)’를 배웁니다. 버텨주며 담아낼 때까지 기다리는 이 과정이야말로 누군가의 고통에 동반하는 것이며, 부활을 맞이할 때까지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우리 신앙인의 삶과도 닮아 있습니다. 긴 숙고의 시간을 통해 부모님과 청소년들 모두 각자의 마음을 새롭게 경험하며 부활을 체험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과연 어디에 계시느냐고 말합니다. 그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왜 세상의 어둠은 변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시련 속의 우리 곁에 신비로이 현존하신다는 믿음과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현실적인 고통을 당장에 없애주거나 마술 같은 모습으로 해결책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의 신비를 지금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인류의 고통과 함께하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로마 5,3-4)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체험하는 것은 바로 희망을 통해서입니다. 시련 속의 인내와 수양을 통해서 우리는 이 희망을 다져갑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희망입니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로마 8,24-25)

최근 우리 사회는 희망이 위협받는 듯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계엄 선포로 시작된 깊은 혼돈과 정치적 혼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선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의 과정을 이어가면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도 통합보다는 정파적 갈등과 상호 비난이 계속되며 분열의 고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국민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선명한 시민의식으로 연대를 통해 희망을 일궈 나가는 여정에 한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어둠을 넘어서는 희망과 확신입니다.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진정으

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의 어려움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희망을 품고 확신 속에 연대한다면, 이 난관 또한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희망의 위대함에 새롭게 눈떠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기대와 희망,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 그래서 현실의 불의와 질곡을 뛰어넘는 위대한 복음의 비전, 곧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는 지금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실망케 하고 좌절시키는 여러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2025년 정기 회년 선포 칙서의 제목처럼, 결코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로마 5,5) 오늘의 부활 체험은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삶의 기대와 희망을 상실한 이들에게, 또 삶의 참다운 가치가 실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는 이 희망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하느님의 약속을 향해 온 인류가 ‘함께 걸어가는 길’(시노드)에서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회년 동안, 우리는 인류의 여정에서 희망의 용감한 증인, 곧 하느님 자비의 선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부활의 신비를 전하는 “여러분을 믿음에서 얻는 모든 기쁨과 평화로 채워 주시어,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의 힘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로마 15,13)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께서 힘든 풍랑을 헤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 전구해 주시기를 청하며, 주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 평양교구장 서리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정순택

## 인준단체 알림

### 모임

**혼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9519-1608  
때: 매주(금) 19시~21시45분 / 강의·축복기도  
곳: 역삼동성당 경환당(주차 가능) / 이상기

### 낙태 후 화해 피정(착한목자수녀회)

때, 곳: 5월 16일(금)~18일(주일), 6월 20일(금)~22일(주일) 2박3일,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인천)  
회비 없음 / 문의: 010-6637-1366 변 바울라 수녀

### 성체현시와 성모송 천 번 기도회

때: 4월 21일(월) 12시30분~17시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 성모송천수도회 십자가 도보 성지순례

때: 5월 17일(토), 갑곶순교성지 외 3곳(인천교구)  
출발: 7시30분, 전철 2·4호선 사당역 공영주차장  
문의: 010-3080-9104 / 사전 접수 필수

### 호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4월 25일~28일·5월 16일~19일·6월 20일~23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 회비: 36만원(호소비 포함)  
본당별 출장피정 신청 가능 / 문의: 010-9363-7784

### 서울대교구 성령새신봉사회 금요철야기도회

강사: 김성대 신부 / 문의: 010-3242-6868  
때, 곳: 4월 25일(금) 18시~22시(미사 21시),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500·504·651 환승, 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울동, 찬양, 고해성사

### 지리산 피아골·성지순례 / 문의: 010-3712-8119

|                 |                              |
|-----------------|------------------------------|
| 피아골 피정          | 6월 20일~21일, 7월 18일~19일       |
| 전주·광주           | 4월 29일~5월 1일 대구교구 5월 22일~23일 |
| 홍성남 신부와 고도·나가사키 | 6월 16일~20일                   |

###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       |                  |                                    |
|-------|------------------|------------------------------------|
| 제137차 | 5월 16일(금)~24일(토) | 문의: 061)373-3001,<br>010-6216-5346 |
| 제138차 | 6월 13일(금)~21일(토) |                                    |
| 제139차 | 7월 11일(금)~19일(토) |                                    |

###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주최)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      |                                      |
|------|--------------------------------------|
| 1박2일 | 6월 28일(토)~29일(주일), 8월 30일(토)~31일(주일) |
| 2박3일 | 5월 4일(주일)~6일(화), 6월 23일(월)~25일(수)    |
| 3박4일 | 6월 5일(목)~8일(주일), 7월 3일(목)~6일(주일)     |
| 8박9일 | 4월 23일(수)~5월 1일(목), 5월 14일(수)~22일(목) |
| 40일  | 10월 14일(화)~11월 22일(토)                |

###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                         |                            |
|-------------------------|----------------------------|
| 성지순례(크로아티아·메주고리예)       | 4월 27일~5월 9일(12박13일)       |
| 개방의 날                   | 매월 첫번째(금) 5월 2일 10시~15시30분 |
| 사도행전과 함께하는 대침묵 피정       | 5월 9일~11일(2박3일)            |
| 토요성모신심 기도와 미사           | 5월 17일 10시~12시             |
| 다네이영성수련(대침묵)            | 6월 27일~29일(2박3일)           |
| 단체 피정(자제·위탁) / 개인 피정 가능 |                            |

### 멈춤, 그리고 쉼-도심 속 침묵 피정

내용: 일상을 멈추고 온전한 쉼 안에서 하느님 만나기  
때, 곳: 5월 17일(토) 11시~18일(주일) 11시, 노들담 서울 교육관(종로구 북촌로 54) / 5월 8일까지 접수  
1인 1실 / 문의(접수): 02)2135-9398 한국CLC

###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부활맞이 엠마오 성지순례

때: 4월 21일(월) 오전 8시 출발(명동 가톨릭회관)  
곳: 명에목 성지 / 내용: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회비: 5만원 /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계좌: 국민 794001-04-122952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 2025년 성령쇄신 전국대회 / 문의: 02)777-3211

강사: 어거스틴 문탁각 신부(인도, 말씀과 치유 은사)  
미사: 손희송 주교, 전국교구담당 및 협력사제단  
때, 곳: 4월 26일(토) 9시~17시30분, 음성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 대상: 모든 교우  
주최: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회협의회

### '푸른꿈 제주섬' 이야기-제주 피정

강우일 주교와 함께하는 순례(성지·자연, 섬, 말씀초대)  
대상: 개인, 가족, 단체, 본당(사목위원·구반장)  
때: 5월 21일~23일·6월 9일~11일·9월 18일~21일  
곳: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한국통합사목센터·주최)  
문의: 010-9670-9775, 010-7200-4567

###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때: 생태순례 5월 10일~12일·5월 20일~22일·6월 15일~17일(추자도 포함)·6월 20일~22일·9월 15일~17일·10월 10일~12일, 추자도포함 성지순례 5월 26일~29일·6월 1일~4일, 우도섬 포함 여름 피정 7월 19일~21일·7월 31일~8월 3일·8월 8일~10일·8월 14일~17일·8월 23일~25일 / 문의: 064)756-6009, 02)773-1463

###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5월 9일~11일·5월 13일~15일·5월 17일~20일(추자도)·5월 21일~23일(성모의밤 포함)·5월 24일~26일·6월 2일~4일·6월 6일~8일·6월 12일~14일·6월 21일~23일(추)·7월 1일~4일(추)·7월 12일~14일(우도섬 포함)·7월 18일~20일·7월 22일~24일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 교육

**스테인드글라스 교육 회원 모집(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http://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 성가발성 노래교실 / 문의: 010-9842-8818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장  
곳: 시스피나 음악원(주최, 신촌)

###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때, 곳: 5월 14일~28일 매주(수)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 사이버성경학교 '희년' 이벤트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이  
접수: 인터넷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 365일 신청  
전과목 50% 할인, 다양한 무료 콘텐츠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 다종이인형연구회원 모집

문의: 02)727-2471 한국여성생활연구원

### 서강대학교 '거룩한 만남의 순간들'

주제: 전례를 통한 신앙 체험 II  
강사: 구정모 신부(예수회) / 문의: 02)705-4711  
때: 4월 21일(월) 14시~16시(강의·미사)  
곳: 서강대학교 이나시오 소강당 / 회비 없음

###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신입생 모집(2025년 후기)

모집전공: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학 석사과정 / 입학전형: 6월 2일(월) 14시  
원서접수: 5월 7일(수)~19일(월) 17시  
문의: 02)3147-8156 대학원교학팀, 02)3147-8664 조교

### 학교 밖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 모집

모집 대상: 학교 밖 청소년(14세~24세) / 수업내용: 검정고시·수능준비, 진로탐색·자격증 취득(요리·제과·사진·바리스타·포토샵 등), 자기계발(기타·원어민 영어회화·토론·글쓰기·필라테스·일본어·보컬·작곡 등)  
검정고시·수능지도 봉사자 수시 모집 중(1365 홈페이지 참조) / 문의: 02)382-5652 청소년문화공간JU

### 유럽에 가야하는 EU 해외탐방

내용: 서유럽 여행 속 국가별 역사 및 문화이해를 통한 청소년 국제교류 캠프 활동  
때: 7월 20일(주일)~28일(월) 총 9일간  
참가대상: 11세~19세 청소년 30명 / 회비: 1인 585만원  
접수: [boramyc.or.kr](http://boramyc.or.kr) 접수 후 '프로그램 안내' 게시글 확인 및 구글폼 제출 / 문의: 02)834-7233, 4 서울대교구 (제서울가톨릭청소년회 보라매청소년센터)

### 가톨릭신앙아카데미 42기 모집

대상: 방송, 신문, 출판, 홍보, 광고, 뉴미디어 등 미디어 종사자(1975년 이후 출생)  
때, 곳: 5월 20일~7월 22일 매주(화) 19시20분부터 약 2시간(주말 피정 포함 총10회), 서울대교구청 본관 501호  
회비: 20만원(개근·정근 시 소정의 페이백 장학금 지급)  
성경, 사회교리, 가톨릭문화, 미디어윤리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 / 수료시, 교구장님 명의 수료증 부여  
문의: 이메일([ca\\_sinang\\_ac@naver.com](mailto:ca_sinang_ac@naver.com)), 010-5294-6207 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

###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영성학교

강사: 양승국 신부, 최황진 신부, 김연범 신부, 전삼용 신부, 송봉모 신부, 박효철 신부, 김현우 신부, 김재덕 신부, 김성대 신부, 박현민 신부, 이창진 신부,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 파견미사: 주교 집전  
때: 4월 22일·29일·5월 13일·20일·27일(화) 12시30분~17시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0505-091-0523, 02)777-1773  
2025년 영성학교: 4월~7월·9월~10월, 매월 시간·장소 동일 / 회비: 월 3만원(완납시 18만원)  
계좌: 신협 131-022-652844 가정선교회 / 당일접수 가능

### 예수회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무료 정기강좌

때, 곳: 14시, 예수회센터 성당 / 문의: 02)3276-7799  
4월 24일(목) 나르시시즘과 영적 교만 최지윤 수녀  
5월 22일(목)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송봉모 신부

### 모집

### 가톨릭남성합창단 올바우 단원 모집

때, 곳: 매주(월) 19시30분, 성음악아카데미(충림동)  
지휘: 성궁용 / 문의: 010-9042-8811

게재된  
시간 검색

cpbc플러스 다운로드

## cpbc TV 2025 부활 개편



cpbc TV가 2025년 부활 개편을 단행한다. 먼저, 많은 교우분에게 사랑받고 있는 '매일미사' 후 바로 '영성의 시간'과 '성경의 시간'이 편성되었다. 기도와 전례, 묵상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은 시청자들의 수요에 맞춰 두 프로그램이 평소보다 10분 일찍 시청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부활 개편에서는 신규 제작된 다양한 신앙 체험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일상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며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신앙 다큐 '내가 만난 하느님', 청년들이 5개의 수도회를 체험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담은 '수도원에서 나를 찾다 YOU세미나',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순간에 대한 토크 프로그램, '응답하라 부르심에 시즌2', 원로 사목자들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청해 듣는 시간 '님 따라 한평생 시즌2' 등의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전한다.

한편, 새롭게 선보이는 수준 높은 해외 프로그램들도 눈에 띈다. 스페인 공영 방송사 RTVE가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산티아고 순례길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하늘과 땅 사이, 산티아고 순례길', 성 베네딕토와 성 그레고리오를 비롯한 성인 8명의 삶과 신앙을 소개하는 다큐 '성덕의 향기',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의 위대한 작품들을 비롯해 바티칸 박물관에 소장된 작품들을 소개하는 '바티칸의 예술품들'을 통해 해외의 가톨릭 문화와 풍경을 즐기는 재미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함께 기도하는 밤

더 자세한 내용은  
큐알(QR) 스캔

### [5월 이벤트 안내]

- 성체조배: 5월 1일(목) 19시40분, 주교좌 명동대성당
- 이벤트 응모 기간: 5월 8일(목)까지 / 이메일([thursnight@catholic.kr](mailto:thursnight@catholic.kr)) 응모
- [시상] 함께상: 인증샷 일러스트 업서 10매, 도서 《함께 기도하는 밤》 2권  
기도상: 도서 《함께 기도하는 밤》(가톨릭출판사, 이영제 신부 지음) 2권



매월 첫 목요일 밤을 가장 특별하게 보내는 방법! '교구장님과 함께하는 성체조배'에 교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짝꿍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어루만지는 밤을 보내보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총만해지는 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을 기록하고 나누어주세요! 짝꿍과 함께 찍은 인증샷과 느낀 점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매월 추첨을 통해 정성이 담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특히 성모 성월이며 가정의 달인 5월, 사랑하는 가족들 손을 잡고 명동으로 오시는 건 어떨까요? 성체조배를 함께하며 부활의 기쁨을 나눠보세요. 우리, 첫 목요일에 만나요!

YouTube

가톨릭튜브

유튜브 검색창에 '가톨릭튜브'를 검색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큐알(QR) 스캔

### ✓ 샌드아트로 만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감동을 샌드아트 영상으로 만나 보세요. 따뜻한 내레이션과 더불어 빛과 모래가 그려내는 거룩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튜브에서 '가톨릭튜브'를 검색해 보세요!)



(코너1) 샌드아트로 만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



### ✓ 사제관 옆 영화관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마음 따뜻해지는 영화들을 신부님이 하나하나 손수 골라주는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찾아가입니다. 깊이 있는 해석과 따뜻한 감동을 동시에 챙겨보세요!



(코너2) 사제관 옆 영화관